

조계종 총무원장 특보단 임명

종책 · 문화 · 정무 · 사회 · 복지 분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특보단을 꾸렸다.

원행 스님은 12월 6일 종책특보에 보인 스님, 문화특보에 혜일 스님, 정무특보에 성행 스님, 사회특보에 진각 스님, 복지특보에 화평 스님을 임명했다.

종책특보 보인 스님은 암도 스님을 은사로 1982년 수계했다. 대원사 · 백화암 · 홍룡사 · 용문사 주지 및 제14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제17대 중앙종회의원을 맡고 있다.

문화특보 혜일 스님은 도견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수계했다. 백련사 · 연화사 · 흥천사 주지 및 총무원 기획실장 · 문화부장, 제14~15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제17대 중앙종회의원과 성남 봉국사 주지를 맡고 있다.

정무특보 성행 스님은 종상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수계했다. 제15~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제17대 중앙종회의원과 의왕 청계사 주지를 맡고 있다.

사회특보 진각 스님은 혜암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수계했다. 수미정사 · 연호사 주지 및 총무원 사회부장, 교육원 교육부장을 역임했다. 현재 제17대 중앙종회의원과 해인사미타원 주지를 맡고 있다.

복지특보 화평 스님은 월주 스님을 은사로 1988년 수계했다. 무사 · 심곡사 주지 및 제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제17대 중앙종회의원을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진묵조사 385주기 추모다례재

김제 조앙사, 12월 4일 기념행사

김제 조앙사(주지 송헌)는 12월 4일 진묵조사 385주기 열반기일 다례재와 미륵 삼존불 봉불 1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호남범음회 휘암 스님과 운산 스님, 혜주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됐다.

주지 송헌 스님은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고승이자 동양의 작은 부처님으로 추앙받고 있는 일옥 진묵조사의 열반기일을 맞아 스님의 가르침과 효행사상을 기리는 의미에서 해마다 추모다례재를 봉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진묵조사는 1562년 4월 초파일에 불거촌 유앙산, 현 조앙사 터에서 탄생했다. 7세 때 완주 봉서사로 출가해 1633년 음력 10월 27일 열반삼매에 든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의 소(小)석가로 불리며 석가모니 부처님의 응화현으로 숭앙받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함께 웃는 세상 그곳이 佛國土"

Interview

부산시 명예장 수상한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1983년부터 이어진 봉사활동
자비원-미소원 이어 35년째
환우 · 재소자 위한 활동 인정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우리는 미소원입니다."

힘찬 구호가 인상적인 불교 봉사단체 사단법인 미소원의 화두다. 미소원의 든든한 기둥으로 활동하는 장유정 이사장이 부산시가 수여하는 '명예장'을 수상했다. '명예장'은 자원봉사자 가운데 봉사시간 점수가 1만점 이상인 사람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12월 13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 앞서 만난 장유정 이사장에게 소감을 묻자 "사실은 무덤덤하다"고 답했다. 그도 그럴 것이 봉사점수는 상징일 뿐 시간으로 따지자면 이미 셀 수가 없기 때문일 터.

미소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1365자원봉사자센터에 2012년 11월 인증기관으로 등록됐고 봉사시간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식 미소원 창단은 2011년 11월 11일이었으며 전신인 비영리 자비원 봉사회 후원회는 1983년에 설립됐다.

미소원은 1989년부터 국립마산결핵병원서 매월 가족 없는 환우를 위한 반찬과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1년에 2번은 수육, 김장김치, 과일 · 떡 등을 준비해 전체 환우를 위한 위문잔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법륜 스님이 이끄는 정토회와 인연을 맺어 제3세계 결핵환자 살리기에 동참했으며, 법무부 부산구치소 재소자 교화, 자살 상담 및 정기적인 법회를 통한 교정교화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가족 없는 재소자를 위해 후원금을 지급하고 시력 1급 장애 어르신 병원 모시고 다니기 및 생활 활동지원 외 수많은 봉사 활동을 잇고 있다.

장 이사장은 봉사시간 등록은 봉사에 동참하는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설명한다.

"하루 봉사시간을 8시간 이상 입력할 수 없습니다. 아침 8시에 나와 밤 11시까지 봉사할 때도 많은데, 이 때문에 봉사시간 입력은 사실 무의미하죠. 그러나 시간을 차곡차곡 입력하는 이유는 미소원을 찾는 봉사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듯 격려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러 활동 가운데 장 이사장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봉사는 바로 상담이다. 상담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를 묻자 "가장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고, 마음을 가볍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뿐 아니라 개인 상담을 통해 극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기금을 전달해 왔다. 장 이사장은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맞는 사람들을 볼 때 가장 보람을 얻는다"며 "미소원 법당에 기도 후원금이 희망기금으로 사용된다. 오직 '함께 웃는 세상'이 '평상심'이자 곧 '불국토'라 말하는 기도 도반들의 성금이 이룬 기적들을 본다"고 말했다.

장유정 이사장은 사단법인 미소원에서 봉사활동을 이끌고 있으며 능력과 기여도를 인정받아 2004년 법무부 장관상, 2009년 보건복지부 장관상, 2012년 대한민국 국민나눔대상 복지부 장관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禪學, 생활선 연구 고민해야"

한국선학회 새 회장
김방룡 충남대 교수



"선수행이 과거에 비하면 대중에게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학문으로는 여전히 이론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과거의 선에 대한 분석 등은 중요하지만 현대인들을 위한 선의 생활화를 위해 선학자들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불교의 선학을 대표하는 학자들의 모임인 한국선학회 제10대 회장에 김방룡(54 · 사진) 충남대 철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한국선학회는 11월 23일 조계사 불교대학서 열린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김 교수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회장은 2003년부터 한국선학회 활동을 시작해 총무와 부회장을 역임했다.

김 회장은 12월 5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서 "한국선학회 창립멤버로서 여러 책임감을 느낀다. 최근 수년간 학회지나 학술발표회 등을 봤을 때 선학회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발전을 이어왔다"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랫동안 선학회에 몸 담아온 회원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경우가 여럿 있다. 앞으로 기존에 학회 활동을 하던 분들이 다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국선학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신진학자 양성을 꼽았다. 사회 흐름에 따라 탈종교화, 불교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지만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김 회장은 "인문학과 종교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 낮아지면서 선학은 다른 학문보다 신진학자 발굴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산이 한정적인 선학회도 이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선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생활 속 선을 알릴 수 있다면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부분은 학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불교와 선학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회장은 전북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석사과정을 마쳤다. 원광대 대학원서 '보조 지눌과 태고보우 선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중국 북경대 철학과에서 방문 연구학자 과정을 밟았다. 저서로 〈보조지눌의 사상과 영향〉 〈불교수행법〉 등이 있다.

윤호섭 기자

일타 대종사 19주기 추모재

영천 은해사, 11월 29일 다례재 봉행



팔공산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동곡당 일타 대종사 열반 19주기 추모다례재를 11월 29일 경내 육화원에서 봉행했다. 추모다례재에는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과 관장 돈명 스님을 비롯해 BBS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일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덕조 스님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일타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행복나눔 자비의 김장

대구 대성사, 소외계층 돕기 행사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영제)는 12월 3일 지역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행복나눔 자비의 김장 담그기'를 경내 향림당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달서구의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직접 재배한 배추 2500포기를 김장으로 담가 달서구와 성당동 등에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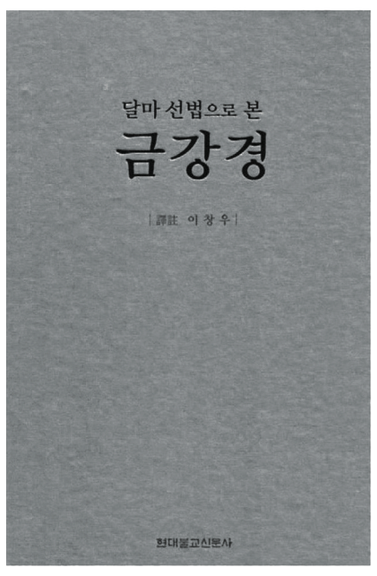
현장 실무자 모두 '복지유공자'

조계종복지재단, 제20회 전국불교복지대회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은 1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공연장서 제20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개최, 불교복지 발전을 이끈 유공자 24인을 시상했다. 이날 종로노인복지관장 정관 스님 등 복지 분야 관계자를 비롯해 강창일 국회 정각회장 등 정 · 관계, 박종수 현대불교신문 사장 등 내빈이 참석해 자비나눔을 실천한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지원 기자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을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문의 : 02)2004-8216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피부 · 치아 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소화불량, 스트레스(화병), 가슴통증, 수행시상기증, 얼굴모낭충,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대장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